

고용노동부-배달플랫폼, '겨울철 대비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점검' 간담회

- 이동노동자 쉼터 정보 제공·활용 독려, 다양한 쉼터 확산 등 실천 당부 -
- 6개 배달플랫폼 업체의 겨울철 대비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방안 논의 -

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월 14일(수) 16시,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우아한청년들, 바로고, 부릉 등 6개 주요 배달플랫폼업체들과 겨울철 대비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.

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파 등 기상상황 악화로 겨울철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.

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▲한파 등 기상정보 및 이동노동자 쉼터 정보 신속 제공 ▲배달플랫폼 차원에서 다양한 쉼터 마련 ▲배달종사자 안전과 건강 보호방안의 전반적인 점검 및 내실있는 추진 등을 당부했다.

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(주)우아한청년들 박승선 라이더정책실장은 “편의점 약 3천개소를 배달종사자들의 쉼터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, 앞으로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했고,

부릉 채윤서 대표이사는 “현재 운영 중인 80개의 라이더 스테이션을 통해 따뜻한 물과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, 보온장갑 등 방한용품 지원을 하고 있다”라고 했다.

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“겨울철은 도로 결빙, 쌓인 눈 등으로 산재 위험이 높아지는 바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”라면서, “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배달플랫폼업체가 내실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”라고 강조하며, “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한편, 고용노동부는 한파 재난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 한파 대책기간('25.11.15.~'26.3.15.)에 ▲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등에 따른 중독·질식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, ▲산재사망 및 한랭질환 발생 비율이 높은 청소·환경미화 관련 생활폐기물 사업장, ▲배달노동자 등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·직종의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산업보건보상정책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	책임자	과 장	이지은 (044-202-8962)
		담당자	사무관	원치욱 (044-202-8898)
담당 부서	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	책임자	과 장	신백우 (044-202-8890)
		담당자	사무관	박현건 (044-202-8891)



참고

겨울철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점검 간담회 개요

□ 개요

- (일시) '26. 1. 14.(수) 16:00~17:00
- (장소) 서울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
- 참석자
 - (노동부) 산업안전보건본부장, 산업보건보상정책관 등
 - (안전공단) 산업안전실장 등
 - (배달플랫폼사) (주)우아한청년들, 부릉 등 6개사

□ 주요 내용

- 겨울철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방안 점검 및 당부

□ 주요 일정

구분	주요 내용	비고
16:00~16:03	인사말씀	산업안전보건본부장
16:03~16:06	겨울철 배달종사자 산재예방 · 안전관리 철저 당부	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장
16:06~16:30	겨울철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방안	6개 배달플랫폼사
16:30~16:55	자유 토론	참석자
16:55~17:00	마무리 말씀	산업안전보건본부장